

성준엽 대표 “전 세계 어디서든 하나의 플랫폼으로 투자”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미래에셋, 주식앱 밖으로

MAPS
Mirae Asset Portfolio Service

홍콩 MAPS에 토큰 플랫폼 개발
그룹 ETF 토큰화 우선 검토
채권·펀드·단기금융상품도 대상

“토큰화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상품의 접근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엽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상품 토큰화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6월 홍콩에서 선보인 ‘MAPS’는 홍콩·미국·한국 주식과 디지털자산에 하나의 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글로벌 투자 플랫폼이다. 홍콩 법인은 이 플랫폼에 상장지수펀드(ETF)와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화한 상품까지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성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글로벌 채권 세일즈맨드레이딩(S&T) 업무를 맡았다. 이후 싱가포르법인 대표를 거쳐 현재 홍콩 법인을 이끌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 법인은 MAPS를 토큰화 사업의 기반이자 개인 자산관리 사업 확대의 계기로 삼고 있다..



성준엽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대표

◆그룹 ETF부터 검토…외부 토큰화 상품도 유통 구상

성 대표가 토큰화 대상으로 먼저 제시한 것은 미래에셋그룹의 ETF다. 채권과 펀드, 단기금융상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MAPS내 토큰 플랫폼 서비스도 개발 중이며, 현재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4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하고 토큰화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셋이 직접 발굴한 상품 뿐 아니라 외부에서 발행한 토큰화 자산도 다룰 방침이다. 성 대표는 “미래에셋은 자산 발굴부터 토큰화, 유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발행된 우수한 토큰화 자산도 MAPS를 통해 유통하는 개방형 플랫폼 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증권사의 가상자산 서비스와 토



홍콩 미래에셋증권 본사 입구.

/미래에셋증권

큰화 증권 취급에 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왔다. 국내에서는 토큰증권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성 대표는 “홍콩은 미래 금융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쌓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운영 경험과 토큰화 자산 구조화 역량이 향후 한국과 다른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경쟁력이 될 것으로 봤다.

토큰화와 디지털자산이 현재 우선 추진 분야라면,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는 중장기 과제다. 성 대표는 향후 AI를 결합해 고객 맞춤형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에서 개인으로…준고액자산가·MZ세대 주목

토큰화 사업과 함께 홍콩법인이 키우려는 또 다른 축은 개인 자산관리다. 성 대표는 “그동안 홍콩법인은 기관투자자 중심의 비즈니스에 강점을 갖고 있었다”며 “MAP

S출시는 개인 고객 비즈니스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기관 영업에 더해 개인 고객에게 글로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관리(WM)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객 범위는 중산층부터 초고액자산가까지로 잡았다. 이 가운데 성 대표는 준고액자산가와 MZ세대를 미래에셋 3.0 전략에서 주목하는 고객층으로 꼽았다. 여러 시장의 주식과 ETF, 디지털자산을 살펴보는 고객에게 투자상품과 정보, 자산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콩 투자자의 성향도 서비스 방향에 반영했다.

성 대표는 홍콩 투자자들이 “특정 국가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자산군과 시장을 비교하며 투자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일 상품보다 글로벌 분산 투자, 한국 투자, 디지털자산을 결합한 중

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 이어 국내 MTS에도 MAPS라는 이름이 적용됐다. 성 대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각국의 앱 이름을 맞추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에셋이 보유한 상품과 리서치, 디지털 서비스 역량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는 “국가마다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기보다는 글로벌 고객이 어디에서든 동일한 투자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브랜드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거래 서비스를 뜻하지는 않는다.

성 대표는 홍콩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미국 주식과 한국 ETF에 접근하고, 향후 디지털자산과 토큰화 자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취득 여부와 상품 적격성, 판매 제한 규정에 따라 제공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며 “플랫폼은 하나지만 현지화된 서비스는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성 대표는 미래에셋이 지향하는 모습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고객이라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금융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 기업”이라고 표현했다. 홍콩에서 추진하는 토큰화 서비스와 개인 자산관리 사업은 그 구상을 실제 고객과 상품으로 연결하는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홍콩=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AI가 투자정보 찾고 자산관리까지 돕는다

미래에셋증권 ‘MAPS’ 개편 장중 흐름, 2시간 간격으로 요약 디지털자산·美비상장주식 정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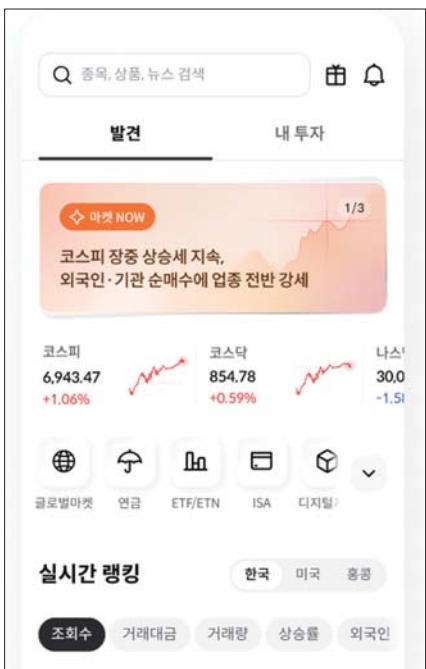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의 명칭을 MAPS로 변경하고 통합 투자 플랫폼으로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MAPS는 ‘Mirae Asset Portfolio Service’의 약자다. 고객이 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투자 방향을 점검한 뒤 실행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난 6월 홍콩법인에 이어 한국 시장에 두 번째로 적용됐으며, 그룹의 중장기 비전인 ‘미래에셋 3.0’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칭은 미래에셋증권 출범 초기 고객의 투자 목적과 위험 성향에 맞춰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했던 전문가를 MAPS라고 부른 데서 가져왔다. 당시의 자산관리 방식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투자 기회 탐색과 보유자산 점검을 연결하는 데 있다. 홈화면을 ‘발견’과 ‘내 투자’로 구성해 발견에서는 시장 흐름과 주요 지수, 주도주, 상장지수펀드(ETF), 금융상품 등을 살펴보고, 내 투자에서는 자산 현황과 보유 종목,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중 흐름을 2시간 간격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AI 서비스 ‘마켓Now’도 도입했다. 현재가 화면에는 시세 추이를



미래에셋증권 ‘MAPS’ 화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간편 차트를 제공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탭을 중심으로 화면 구조를 정비했다.

투자 정보의 범위도 넓었다. 신설한 디지털자산 메뉴는 시장 정보와 시세를 제공하는 ‘마켓’,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 금융산업, 전문 리서치 자료를 담은 ‘인사이트’로 구성했다. 나스닥 프라이빗마켓(NPM) 등 미국 비상장주식 시세 정보 제공해 상장 전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앞서 개편한 ‘MY자산’과 보유·관심 종목 중심의 정보 서비스 ‘투자NOW’에 이번 기능을 더해 자산 확인부터 정보 탐색, 투자 판단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강

화한다는 구상이다.

AI 자산관리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제공하는 ‘AI 이슈체크’, ‘AI 사업요약’, ‘AI 투자브리프’와 마켓Now에 이어 상담·업무 및 자동주문 AI 에이전트, 포트폴리오 진단·분석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와 웰스테크, 랩어카운트, 모델포트폴리오(MP) 구독, 주식모으기 등 기존 서비스도 한곳에 모아 개인화된 포트폴리오 제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 목표는 능동형 자산관리 체계인 ‘Agentic WM’이다. AI가 고객의 투자 목표와 제약 조건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를 감지하고 투자 행동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투자 판단과 실행은 고객이 통제하되, 앱에 접속하지 않은 시간에도 전담 AI 에이전트와 전문 어드바이저가 함께 자산관리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MAPS는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원칙을 AI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하는 출발점”이라며 “고객이 잠든 시간에도 자산은 일한다”는 방향 아래 AI Everywhere와 Agentic WM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바탕으로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MAPS를 확장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으로 발행

금융위,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시장·투자한도 등 요건 구체화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채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된다. 다만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와 발행인의 자본요건을 두고 업계의 완화 요구가 제기돼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 대상과 분산원장 요건, 계좌관리기준 등록기준, 유통시장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대상에 비금융자산·금융상품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을 포함했다. 토큰증권 활용 범위를 조각투자에서 기존 자본시장 상품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유통시장에서는 비상장주식과 비금융자산·투자계약증권에 더해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현재 일반투자자 간 채권 매매 수효는 크지 않지만, 토큰화를 통해 채권 유통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는 거래소별로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했다.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한다.

증권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썬GPT로 생성한 이미지

리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마련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함께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 한다.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포함한 계좌관리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상시에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분산원장이 증권의 권리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로 쓰이는 점을 고려해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업계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자기자본 기준을 낮추거나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식 입법절차에서 논의한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